



Global Packaging News

EU

제과 및 음료 포장의 혁신 이어져 더 나은 포장에 집중

유럽의 당과류(젤리, 초콜릿, 사탕 등) 제조업체들은 소비자가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제품을 요구함에 따라 이산화티타늄, 젤라틴 제거, 첨가제 감소, 천연염료로 전환, 설탕 감소 등 조리법 개선뿐만 아니라 더 나은 포장에 집중하고 있다.

2021년 초 스위스 네슬레(Nestle)는 운송 및 보관 중 제품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2년간의 테스트 및 연구 개발 끝에 브랜드의 모든 포장을 종이와 판지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초콜릿 스마트스(Smarties)는 재활용 가능한 종이로 만든 육각형 튜브에 담겨졌다.

대형 초콜릿 과자 제조업체인 아메리칸마스(American Mars)는 단일 재료 및 종이 기반 포장 등 플라스틱의 대안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00%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 포장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

스윙글리(Mars Wrigley)는 작년에 M&M 초콜릿을 300g의 대용량 팩으로써 재활용 가능한 단일 소재 파우치로 포장했다.

하리보(Haribo)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100% 재활용 가능한 PE와 재밀봉이 가능한 지퍼가 달린 새로운 스탠드업 파우치(stand-up pouch)형 백에 자사의 상징적인 과자인 드래지버스(Dragibus)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분류 및 재활용된 파우치는 농업용 방수포, 쓰레기봉투 및 원예용 흙 봉투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혁신은 하리보의 친환경적 접근 방식의 일부인데, 목표는 2025년까지 포장재의 플라스틱을 20% 줄이는 것이다. 하리보는 또한 포장 백 높이 감소로 2년 동안 10톤의 플라스틱을 절약 하였고, 2022년에는 모든 제품에 재활용 가능한 단일 소재의 스탠드업 파우치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프랑스 설탕 제과 2위 기업인 카람바엔코(Carambar&Co)는 과일 맛이 나는 크레마(Krema) 사탕에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봉투를 최초로 테스트하고 있으며, 신생기업인 푸르트라이



▲ 하리보(Haribo)는 지난해 12월부터 100% 재활용 가능한 PE와 재밀봉이 가능한 지퍼가 달린 새로운 스탠드업 파우치(stand-up pouch)형 백으로 드래지버스(Dragibus)를 제공하고 있다.

드(Fruit Ride)는 4월부터 유기농 스낵 및 제과의 전체 범위를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 포장으로 전환했다.

플라스틱(PET) 병이 재활용으로 분류될지라도 병에 붙은 라벨은 일반적으로 재활용되지 않는데, 에비앙은 브랜드 이름과 기타 기능(용량 등)을 엠보싱 처리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병을 디자인하여 라벨을 제거하였다. 에비앙 누드는 올해 6월부터 판매 중이다. 한편, 현재 에비앙 한병의 20~50%는 rPET(재생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에비앙은 2025년까지 전 제품에 100% rPET을 사용하여 순환 브랜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포장을 위한 시도가 제과, 음료, 시리얼 등 여러 품목에서 실현되고 있다. 스탠드업 파우치는 설탕, 과일 퓨레 등에 널리 사용되는 포장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익숙한 포장인데, 지퍼 혹은 뚜껑이 달린 스탠드업 파우치를 활용하여 대용량 제품으로 만들어 소포장으로 낭비되는 포장을 줄이거나 음료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 라벨 등을 제거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

France

2022년 일부식품 플라스틱 포장 금지 시행

2040년 플라스틱 전면 퇴출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과 같은 친환경 의제에 있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당장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어떤 규제가 도입되었는지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 예고된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2020년에 발효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은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까지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크게 다섯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회용 플라스틱의 퇴출, ▲소비자 교육,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은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단계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일명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 2025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그중 최소 절반 이상은 재사용을 통해 감소시키기, ▲2025년까지 전구나 건전지를 포장하는 플라스틱과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2025년 1월 1일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



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막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도입했다. ▲대중이 방문하는 공공시설 및 직업시설에서 플라스틱 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축제, 문화행사, 스포츠행사 중 스폰서는 플라스틱 병 이용 요구 불가, ▲플라스틱 컨페티(축제 등에서 뿌리는形形色색의 조각들) 사용 금지, ▲슈퍼마켓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계산대 통과 후 구매한 제품의 포장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 ▲기포질의 폴리스틸렌, 스티로폼 상자 사용 금지, ▲일회용 비닐백 생산 및 수입 금지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2021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빨대, 일회용 포크 등의 식기, 테이크아웃용 컵 플라스틱 뚜껑, 기포질의 PS상자, 음식용 꼬치, 풍선용 막대기, 플라스틱 컨페티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슈퍼마켓 등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용기 용량에 따라 곡물, 액체류 등을 판매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음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1.5kg 미만 단위의 신선한 과일 및 야채 플라스틱 포장 금지, ▲대중이 방문하는 기관에 공공식수대 설치 의무화, ▲언론매체 및 광고 발송 시 플라스틱 비닐 포장 금지,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로 포장된 티백 판매 금지, ▲음식점 세트 메뉴 판매 시 플라스틱 장난감 무료 제공 금지, ▲과일과 야채 표면에 퇴비화될 수 없는 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원료로 만든 스티커 직접 부착 금지, ▲정부기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구매 전

면 금지 등이다.

프랑스는 플라스틱 퇴출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일례로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프랑스의 환경생태전환부 장관은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나라”라고 자신있게 밝힌 바 있을 정도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서고 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유럽의회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더욱 강력한 규제 또는 금지,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데 프랑스가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인 만큼 프랑스 내 관련 규제 역시 더욱 정교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앞서 언급한 규제 내용 외에도 다양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현장 식사 시 일회용 접시 사용 금지, 2024년 1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의료용품 판매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신형 세탁기에 플라스틱 미세섬유 필터 장치 장착 의무화, 2026년 1월 1일부터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샴푸, 염색제, 샤워젤, 클렌저 등)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 판매 금지 등의 강도 높은 규제가 도입된다. 또한 중대형 마트의 경우 2030년까지 전체 진열 공간의 20% 이상을 리필 내지 소비자가 가져오는 용기에 따라 판매하는 형식으로 꾸며야 하는데, 화장품 등의 제품 생산군은 이러한 규제에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결정에 발맞춰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역시 이러한 규제 내용을 미리 자세히 살펴보고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USA

뉴저지주,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법 시행 폴리스티렌폼 용기, 비닐봉지 등 확대 예정

미국 뉴저지주는 2020년 11월 광범위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2022년 11월 4일 음식점 및 식료품점에서 고객의 요청 없이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발효됐다. 2022년에는 폴리스티렌폼 용기 및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 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제조업체에서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한 식품의 판매 금지까지 플라스틱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1월 4일부터 뉴저지주에서는 고객에게 음료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뉴저지주의 모든 커피숍, 레스토랑, 편의점, 모든 외식업체는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뉴저지주는 당초 플라스틱 빨대의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장애인 단체가 반대함에 따라 법안의 내용이 변경됐다. 신체에 장애가 있을 경우 음료를 마시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고객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할 경우 장애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매장에 적절한 물량의 빨대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종이팩 주스와 같이 제품에 빨대가 함께 포장돼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법 적용을 면제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위반 할 경우 첫 번째 적발은 경고, 두 번째는 US\$ 1000의 벌금, 세 번째는 최대 US\$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저지주의 광범위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는 11월 4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점

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2년 5월 4일부터는 레스토랑 및 식료품점에서 폴리스티렌폼 컵, 접시, 포장용 상자, 식품용기 사용이 금지됨과 함께 두께와 상관없이 비닐봉지 제공도 금지된다. 금지되는 폴리스티렌폼 식품 용기에는 고기 및 야채 포장용 쟁반, 계란상자 등이 포함된다. 70평방미터 (2,500square feet)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은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종이봉투의 제공도 금지된다.

2024년 5월 4일부터는 스무디 등 음료를 떠먹기 위한 길이가 긴 폴리스티렌폼 스푼, 뜨거운 음식을 담기 위한 2온스 크기 이하의 작은 컵, 생고기·가금류·생선을 담아 파는 쟁반, 라면과 같이 제조업체가 미리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한 식품의 제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비닐봉지 사용 규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US\$ 1에 판매하는 박음질된 손잡이가 있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가방, ▲익히지 않은 고기, 생선, 가금류 포장, ▲과일, 야채, 견과류, 커피, 곡물, 제과류, 사탕, 카드, 꽃, 작은 철물 등 날개로 흩어지는 물품 포장, ▲생선 등 살아있는 동물을 담기 위한 목적, ▲얇게 썰어진 식품, 스프, 뜨거운 음식 등 주문 즉시 준비된 식품, ▲처방약 포장, ▲세탁, 드라이클리닝 의류 포장, ▲신문 포장 등이다.

향후 뉴저지주에서 시행을 앞둔 폭 넓은 플라스틱 제품 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 폴리스티렌폼 용기 및 식품포장재 사용이 금지되므로 기존 사용되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컵라면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한 제품도 규제 대상이되므로 식품 제조업체들은 규제에 대비해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